

제22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돌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바라며”

2021년 10월 27일(수) 19:00

제22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2021.10.27(수) 오후 7시~9시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5-2호)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돌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바라며

강 연 윤자영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사례발표 이경자 영양보호사(요양서비스노조 용인지회 부지회장)

온라인 실시간 중계합니다(유튜브에서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검색하세요)
문의 : 02-727-2249 / 02-924-2721

 진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진주교 서울대교구 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책위원회
Committee of Labor Ministry

사회교리 (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11년 사회교리 주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

제22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돌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를 바라며

1. 일시: 2021년 10월 27일(수) 오후 7시~9시
2.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205-2호)
3. 주관: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4. 대상: 관심 있는 신자 누구나 (온라인 유튜브 중계)
5. 내용

시간	내용
19:00~19:05	시작기도(하성용 신부)
19:05~20:15	<강연>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윤자영 교수(충남대학교)
20:15~20:45	<사례발표> 이경자 요양보호사(요양서비스노조 용인지회 부지회장)
20:45~21:00	질의응답
21:00	마침 기도(하성용 신부)

6. 문의: 02-727-2249, 02-924-2721



진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Committee of Labor Ministry



진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강연: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

윤자영
(충남대학교)

2021.10.27

내용

- 돌봄노동의 현재
- 돌봄 정책의 문제점
- 코로나19 팬데믹과 돌봄/돌봄노동 위기
-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

경제의 일부로서 돌봄노동

• 광의의 돌봄노동의 개념

- ①돌봄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일대일 대면 접촉을 통한 인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며, ②수혜자의 역량(capabilities)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 (England, Budig, and Folbre, 2002)
- 실질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 성격의 노동으로서 가정, 시장, 지역공동체, 국가 안에서 인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경제활동

• 돌봄 경제 안에 위치한 돌봄노동

- 노동은 가족, 공동체, 시장, 국가 등 광범위한 자원에서 연결된 '돌봄 경제' 안에서 작동.
- 돌봄 경제는 자녀나 부모를 위해 쓰는 금전적 지출, 유급 돌봄 노동, 가족과 친구, 이웃이 수행하는 무급 돌봄 노동을 모두 포함.
- 돌봄 경제는 여성은 가족 내 무급 돌봄 노동에 특화하고 남성은 시장 소득에 특화하는 성별분업을 기본 골격.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지만 무급 돌봄 노동 수행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권력의 접근성을 제한하여 여성을 가정과 사회 안에서 협상력이 약한 존재로 만들.
- 무급 돌봄 노동이 유급 돌봄 노동으로 될 때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 집중 직종이 되고 있음. 여성의 시장 노동 참여가 활발하고 돌봄의 사회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여성은 시장 안팎을 넘나들며 돌봄 경제의 주된 역할을 수행

돌봄노동의 대상과 영역

	아동	노인	병자/장애인	성인 (타인)	자신
무급 가족 노동	먹이기, 재우기, 같이 놀아주기	일상생활 보조	일상생활보조, 투약/처치	상담, 돌봄, 대화	병원가기, 운동
비공식 시장 노동	보호, 아이돌보미	간병인	간병인		
공식 시장 노동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소아과 의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활동보조인	상담사, 영양사, 요가 강사	

돌봄노동의 현재

• 돌봄의 사회화 정책

• '사회적 돌봄' 확대

- 협의의 돌봄노동의 준공공화/시장화
 - 성인, 장애인, 노인 등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영유아 및 아동 보육과 돌봄, 보호 서비스

• 비용과 서비스의 탈가축화

- ✓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분야의 정부 예산과 이용자 수 증가
- ✓ 가족의 무급 돌봄노동, 주로 여성의 돌봄 부담 감소
 - 보육: 예산 1,460억원 → 5조 7,000억원 (39배 증가), 이용 아동 1,460명 → 200만명 (14배 증가)
 - 노인노인장기요양: 예산 4,268억원 → 7조 7,000억원 (18배 증가), 수급자 15만명 → 73만명 (4.9배 증가)

돌봄노동의 현재

• 돌봄의 사회화 정책

•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대

- ✓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 인력 증가 => 일자리 양적 확대
 - 보육: 어린이집 19,000개 → 37,000개 (2.0배 증가), 보육교사 57천명 → 24만명 (4.8배 증가)
 - 노인장기요양: 기관 15,000개 → 25,000개 (1.7배 증가), 요양보호사 11만명 → 44만명 (3.9배 증가)
 - 이외에도 학교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포함하면 일자리가 크게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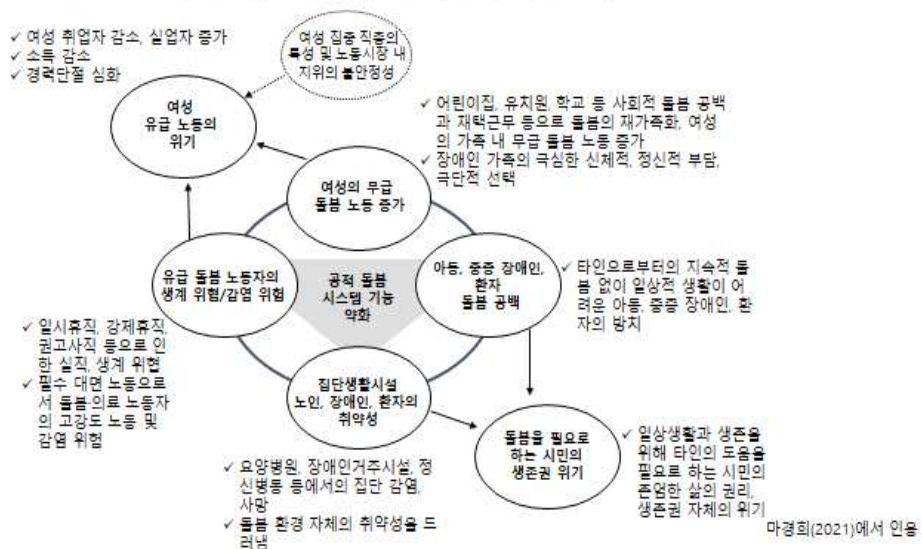
• 돌봄 노동자의 증가

- ✓ 전체: 58만명('08년) → 110만명('19년), 약 52만명(82.6%) 증가, 전체 취업자 증가인원(350만명) 중 15.0%
- ✓ 여성: 53만명('08년) → 1,01만명('19), 약 49만명(91.0%) 증가, 전체 여성 취업자 증가인원(180만명) 중 27.2%

돌봄 정책의 문제점

- 2000년 중반 이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용이 급속하게 증가
 - 저출산 ·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
 - 정부가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 · 산모신생아도우미 · 가사간병방문 등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아이돌보미사업 등의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적 돌봄 영역의 일자리들이 중장년층 여성 중심의 저임금, 불안정 고용 특징을 보임

코로나19 팬데믹과 돌봄위기



돌봄 정책의 문제점

- 사회서비스가 국민들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며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회서비스 예산과 일자리 규모를 확대해야 함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어 옴
 - 그러나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양질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지는 못함
 -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좋은 돌봄'에 대한 시민의 권리, 누가 돌봄노동자가 되어야 하는가,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가정 안팎의 성불평등의 핵심 기제로서 돌봄에 대한 관심은 주변화
 - '노동'을 하는 노동자를 제외한 이용자의 '권리'를 부각.
 - 소비자 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서비스 선택권과 자유를 강조
 - 저렴한 비용의 양질의 서비스라는 모순적인 지향

코로나 19 팬데믹과 돌봄노동 위기

- 고용 불안 심화
 -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불거짐.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호출형 근로의 특성상 이들은 서비스 제공 중단과 함께 소득이 중단되고, 중단할 경우 무급으로 대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소득보장과 사회적 보호
 -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인 고용유지지원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적용되기 어려움. 서비스제공기관-이용자-노동자라는 3자 관계의 호출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특수성이 재가 사회서비스 근로자들 소득 보장에 어려움 가져옴
 - 이용자의 요청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호출형 근로자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같은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 휴업 수당, 정부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함.
 - 돌봄노동자들은 4대 보험 적용대상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 대상 지원도 받지 못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업무 형태로 인해 실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움.

코로나 19 팬데믹과 돌봄노동 위기

• 감염병과 방역 및 산업 안전

- 대면서비스업종이 보건의료복지 업종 가운데서영양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염 고위험군임.
- 돌봄 노동 현장이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을 위한 제대로 된 노동안전 대책이 나오지 않았음.
- 돌봄노동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 소재가 정부-지자체-기관 간에 불분명했고, 결과적으로 개별 기관과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 코로나 19 이전에도 감염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나 노동표준이 전혀 없었음.
- 돌봄종사자를 감염 위험 요인으로 보고 이동동선 보고와 같이 일상생활을 통제
- 현행 산업안전법의 제조업 중심 산업안전과 예방 접근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응하지 못함.
 - 현행 산업안전법에서 안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유해 요인이 생기면 일차적 대응은 그 유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임.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위험 요인, 즉 돌봄대상자나 제공자가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위험 요인을 즉각 제거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가 없음.

돌봄노동의 이중성

• 긍정적 차원의 돌봄 노동

- Care-less
-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사회를 재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
- 누군가는 해야 할 노동
- 긍정적 동기 발현이 서비스 질에 긍정적 영향
- 어떻게 다 함께 조직하고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 부정적 차원의 돌봄 노동

- Care-free :
- 수행하는 사람, 특히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노동
- 나는 하고 싶지 않은 노동
- 부정적 동기에 의해 강요된 노동
- 어떻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노동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돌봄의 보편성**

- ✓ 평생을 걸쳐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 의존의 시기를 거치게 됨.
- ✓ 이 과정에서 돌봄을 주고 받는 상호의존성은 인간 존립의 본질
- ✓ 인간의 보편적 욕구로서 돌봄이 충족되어야 인간 사회가 유지·재생산될 수 있음.
- ✓ 시장 경제의 성장만큼 돌봄이 중요한 공적 이슈가 되어야 함.

- **필수노동으로서 돌봄 노동**

- ✓ 아동, 환자, 노인 등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시민의 생존과 일상 생활 영위를 위해 잠시도 중단할 수 없는 노동
- ✓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
- ✓ 시장에 참여하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돌봄 노동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사회적 돌봄 수요 확대 전망**

- ✓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 취업 확대, 고령화
- ✓ 과거처럼 가족과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에 의존과 무임승차 불가능
- ✓ 돌봄노동의 정서적/관계적 특성으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데 한계

- **현재 돌봄 정책은 향후 사회적 돌봄 수요 대응과 위기 해소 준비에 미흡**

- ✓ 열악한 근로 조건 문제를 낳는 전달체계 속에서, 가정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돌봄노동도 기피될 가능성이 높음
- ✓ 가정 내 무급 돌봄 노동 기피는 저출산 현상 심화 초래, 이는 고령화 가속화
- ✓ 지속가능한 사회에 위기 초래할 것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재평가

- ✓ 돌봄은 중요한 정서적 차원을 지닌 행위이며 강한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
- ✓ 돌봄노동의 생산성이나 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하기 쉬운 전형적 유급노동과 달리 규범적이고 사회적 인식, 고정관념과 편견이 개입되기 쉬운 노동
- ✓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잘 알아차리는 것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질이지만 전형적 유급노동에서 평가하는 '능력'으로 평가되지는 않음.
- ✓ 아무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도 숙련이 형성되지 않는 단순 노동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함.
- ✓ 돌봄노동의 성과, 즉 서비스 질은 도덕적 자질이나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금전적 보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혹은 무관해야 한다는 인식
- ✓ 이러한 이유로 돌봄은 사람의 삶의 조건과 질 돌봄을 받는 사람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경시함.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

• 돌봄노동에 대한 충분한 투자 필요성

- ✓ 모든 시민의 돌봄을 받을 사회권 보장과 돌봄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적절한 경제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함.
-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성화 논의에서 인프라 구축은 물적 투자와 사회서비스 투자를 의미함. 사회서비스에도 보통 교육, 보건, 주거 등 공공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 ✓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는 아동 투자를 강조하지만 인적자본 형성과 수익성 개념에 기반을 둠.
 - ✓ 사회서비스나 사회적 투자는 도로서비스 등 물적 투자처럼 '투자'가 아니라 일회적 '비용 지출'로 간주되어 재정긴축 시 예산 삭감이 되기 일쑤임.
- ✓ 무한히 공급될 것처럼 간주되는 무급 돌봄노동과 값싼 돌봄노동으로 자리매김되면서 돌봄에 대한 재정 투입은 낭비로 인식되어 왔음.

돌봄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시민의 돌봄을 받을 사회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
 - ✓노동자의 관점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강구될 필요
 - ✓저임금 개선
 - ✓적정 노동시간 보장
 - ✓휴게시간 및 휴가 등 적절한 휴식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과 대체인력 수급
 - ✓돌봄 제공 과정의 학대와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돌봄 환경 개선
 - ✓돌봄노동의 가치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누가 돌볼 것인가
 - ✓어떠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가
 - ✓먼 미래,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일과 돌봄

감사합니다

Memo



Memo





노동사목위원회 (1971.3.24 설립)

02872 성북구 보문로 95(보문동5가), 노동사목회관 5층

☎ 02)924-2721 / Fax 02)924-6252

www.nodongsamok.co.kr / nodong@catholic.or.kr

노동사목위원회는 국내외 노동과 관련된 사목적 현안에 관해 교구장을 자문하고, 이와 관련된 사목 활동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동계를 복음화하고, 특히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과 노동 본연의 거룩한 가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가톨릭 정신을 세상 안에서 실현하고 정의와 평화의 구현에 이바지합니다.

교육·연구

노동사목위원회는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노동 관련 사회적인 현안들을 폭넓고 심도있게 연구합니다. 이것은 노동에 대한 교회적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소임을 맡은 사제와 수도자, 임직원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와 탐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및 경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상임위원들이 노동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교회의 가르침과 복음정신에 따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반 활동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교회 내의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사제, 수도자, 평신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강의, 특강, 피정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노동권리교육 ‘숨’ : 신청 본당 파견 교육
- 청년들이 말하고 나누는 사회교리 ‘울림’ : 연 2회
- 청소년 노동권리교육 ‘숨’ 강사 양성 과정 : 2월경
- 노동사목과 사회교리 대중강연 : 연 2회

사도직 단체 지원

* 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하는 모든 청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세상과 노동, 삶에 대해 특별한 방법으로(관찰·판단·실천의 방법론) 자신들의 삶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성찰한 복음의 열매를 공동체 안에서(팀모임) 나누고 실천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 나아가 사회 전체를 성화 하는 청년들의 복음화 운동입니다.

* 가톨릭노동장년회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신과 활동 방법론의 연장선 상에서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노동하는 모든 이의 공동체입니다.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과 세상을 성화하고자 하며, 특별히 가정과(개인) 공동체를(팀모임) 중심으로 세상 안에서 참된 노동의 가치를 이룩하고 나아가 노동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돌보는 활동을 합니다.

* 어린이사도직운동

어린이사도직 운동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열려있고 그들 자신이 주인인 운동으로서 스스로 행동하고, 각자 체험을 주고받으며, 믿음을 나누는 교육 운동이자 복음화 운동입니다.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어린이들의 모임에 성인 동반자가 함께 동반하며 어린이들이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 신앙의 증거자가 되게끔 이끌어 줍니다(월 1회).

연대 활동

노동사목위원회는 국내의 사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노동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적 해결방안 모색과 노동문제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활동을 수행합니다.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고용과 임금, 노동 환경과 건강의 문제, 인권과 노동의 기본권 침해 등으로 빚어지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본 위원회는 노사 양자가 상생하고 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노동 현안의 복음적 해결방안 모색
- 노동문제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 안전한 일터와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회복을 위한 산재사목 활동(노동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소개(1984.12.18. 설립)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인류의 대부분을 괴롭히는 재앙이 아직도 많음을 생각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가는 곳마다 장려하기 위하여, 그리고 빈곤한 지역들의 발전과 민족들 간의 사회정의를 촉진하도록 가톨릭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하여”(사목헌장 90항) 보편 교회의 한 기관을 설립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교황 바오로 6세는 1967년 1월 6일에 사도적 서한 ‘Catholicam Christi Ecclesiam’을 반포하여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서울대교구도 1984년 12월 18일에 정의평화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노동, 경제,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북아 평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 연대합니다. 공적인 논의를 통해 인권 문제를 쟁점화하고, 인권탄압의 희생자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모색합니다. 사회사목국 모든 위원회와 기관들의 활동이 곧 정의평화위원회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수도자, 사제들을 대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은 정의평화위원회의 핵심 사명 중 하나입니다. 199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회교리학교’는 정규과정(기본, 응용)에 3,900여 명이 이수하였고, 각 본당에 찾아가 실시하는 ‘본당 사회교리학교’는 5,300여 명이 이수하는 등 그동안 총 9,400여 명이 사회교리학교를 이수하였습니다.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사회교리주간’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사회교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 목적: 복음과 사회교리에 비추어 정의와 평화를 증진
- 교육: 사회교리학교(기본과정, 응용과정),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인권생명 평화기행 등
- 광범위한 연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가톨릭교회 내 모든 단체와 연대 활동, 인권신장,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JPIC) 실현을 위한 연대와 협력
- 간행: 사회현안에 대한 교회 가르침,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사회교리주간 교육 자료집 발간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정의평화위원회
04537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20호
전화 02)727-2431, 팩스 02)773-1051
E-mail: jupecas@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jp.or.kr



서울대교구정평위